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강숙희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Sook-Hi Kang(shkang@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는 교수과정에서 교사의 어떤 교수행동이 중요하며 또 그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89명의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동료들의 모의수업을 서로 관찰하게 한 후,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수업진행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자신들의 실행수준도 수업진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수업구성, 언어적 표현의 순으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몸동작 및 복장과 얼굴표정 및 시선 영역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별 특성에서는 교수내용의 숙지, 교사의 열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미소, 얼굴표정, 목소리의 변화 구사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5개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노력을 집중해야 할 특성으로는 자연스러운 언어표현, 시선 처리, 학생들과의 눈맞춤, 수업시간 조절, 주요내용의 부각이 도출되었다.

■ 중심어 : | 교수행동 | 예비교사 인식 | 중요도 | 실행도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89 pre-service teachers observed teaching demonstrations of each other and rat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eaching behaviors and their own performance level. It was found that Class Operations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both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followed by Lesson Organizations and Verbal Expressions. However, they considered Gesture and Clothing as well as Facial Expressions and Gaze less important. The results of t-tes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for all five area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dicated that Verbal Expressions, Eye Contacts, Time Control, and Emphasis on Important Contents are the factors which need to be improved for effective teaching.

■ keyword : | Teaching Behaviors |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 Importance | Performance |

* 본 연구는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21일

수정일자 : 2015년 01월 09일

교신저자 : 강숙희, e-mail : shkang@catholic.ac.kr

I. 서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 중에서도 교수능력은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기능력의 평가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들은 예비교사들의 교수능력을 최대한 함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교수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가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Centra[3]의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4]. 이 정의에 따르면, 교수능력은 교수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으로 표출되며, 교수 결과로서 학생들의 학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은 교사의 교수능력 외에도 학생 특성, 수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학습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교수능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3], 교수능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교수 과정에서 표출되는 교수행동에 집중되고 있다[4].

교수과정에서의 교수행동을 교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익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수행동은 백순근 등[5]이 주장했듯이 이론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익히기 어려우며, 수업을 관찰하거나 수업을 직접 진행해보는 등의 실제적인 경험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터득된 ‘좋은 수업’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교수능력의 배양을 향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비교사들은 바람직한 교수행동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6].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아직은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 수행이나 수

업 관찰만으로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안목이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더더욱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야만 그것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좋은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행동특성들이 중요하며 또 그 행동특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교수능력 함양을 위해 어떤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효과적인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과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개선노력을 집중해야할 행동특성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수행동의 개념 및 특성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순근 등[5]은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은 이론적 교수역량에 해당되며,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보았다. 이 구분에 따르면 교수행동은 실천적 교수역량의 발현으로, 교수 현장에서 교사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행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5].

백순근 등[5]은 교사의 교수행동은 현장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묵시적인 특성,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적절하게 발휘해야 하는 주관적인 특성, 그리고 교과, 학습자, 교사,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출되는 상황 맥락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교수행동은 묵시적이어서 말이나 글로 뚜렷하게 명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며, 주관적이면서도 상황 맥락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능하고 효과적인 교수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교수행동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7-9]. 공통된 기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효과적인 교수행동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행동 특성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교수행동특성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효과적인 교수행동특성들

원효현[4]은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교사의 교수활동을 수업계획 및 조직, 수업실행, 학생 평가 등 세 범주로 나누고, 수업실행 범주는 다시 학습관리와 학습자관리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업실행에 있어 학습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학습동기 유발, 학습자와의 공감대 형성, 학습자의 긍정적 자아개념 조성 등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을 배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백순근 등[5]은 수업 전에 수업내용과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것, 교수과정 중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것,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 성의와 열의를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 등을 중요한 교수행동으로 강조하였다.

교사의 교수행동특성들을 언어적인 특성과 비언어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그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10][11]. 언어적 특성과 비언어적 특성 중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언어적인 특성으로, 말의 내용보다는 몸동작이, 언어보다는 태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10-12]. 비언어적 표현은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으로, 수업 중 교사의 밝은 얼굴표정과 학생과의 눈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 말의 적당한 속도, 단정한 의상 등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

한편, 정혜선[13]은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행동특성을 언어적 표현, 얼굴표정, 몸동작, 수업 진행, 수업 구성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찰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행동들을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수자의 바람직한 행동들을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 데 반해, 정혜선은 교수자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특성들을 제시했다는 점과 수업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관련 특성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혜선이 제시한 교수자의 행동특성들을 중심으로 교사의 바람직한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가을 학기에 A 대학에서 개설한 조직과목의 하나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 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에서 학업성적 상위권 10%에 드는 학생들로 대부분이 3학년생들이었으며 전공은 국문학, 영문학, 중국어, 일어, 사회학, 국사학, 수학, 화학 등 다양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6명(18%)이고 여학생은 73명(82%)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정혜선[13]이 제시한 교수자의 교수행동 평가항목(20개 문항)들을 예비교사들의 모의수업 평가 목적에 맞추어 총 25개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예비실험 차원에서, 2012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을 수강하는 114명의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이 도구를 사용하여 동료들의 모의수업 평가를 해보게 한 후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의’라는 용어를 ‘수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몸동작 및 복장 영역에 ‘용모와 복장이 적절한가?’, 수업진행 영역에 ‘수업 진행방법은 내용전달에 적합한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교수내용을 숙지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가?’, 수업구성 영역에 ‘수업의 준비와 내용이 충실한가?’가 추가되었다. 완성된 문항들은 교육공학 전문가 1인과 교육평가 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중요도는 해당 항목이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 중요한 특성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실행도는 자신을 포함한 예비교사들의 평균 실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크론박 α 신뢰도 계수는 언어적 표현 영역은 중요도 .83, 실행도 .85, 얼굴표정 및 시선 영역은 중요도 .79, 실행도 .86, 몸동작 및 복장 영역은 중요도 .88, 실행도 .82, 수업진행 영역은 중요도 .86, 실행도 .84, 수업구성 영역이 중요도 .78, 실행도 .80이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수행동특성 문항내용

영역	항목
언어적 표현	발음이 정확한가?(e1) 말하는 속도가 적절한가?(e2)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가?(e3) 말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가?(e4)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변화를 구사하는가?(e5)
얼굴 표정 및 시선	얼굴표정은 자연스러운가?(f1) 미소를 띠고 있는가?(f2) 모든 학생들을 골고루 둘러보는가?(f3) 학생들과 눈맞춤을 하는가?(f4)
몸동작 및 복장	자세는 바른가?(g1) 몸동작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g2) 용모와 복장이 적절한가?(g3)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가?(g4)
수업 진행	교사로서의 열의가 느껴지는가?(r1) 수업 속도와 흐름은 적절한가?(r2) 수업시간 조절은 잘 하고 있는가?(r3) 수업 진행방법은 내용전달에 적합한가?(r4)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r5) 교수내용을 숙지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가?(r6)
수업 구성	수업에 시작(수업내용 소개 등)이 있는가?(c1) 수업에 끝맺음(수업내용 정리 등)이 있는가?(c2) 수업에 숨들릴 여유가 있는가?(c3) 수업이 호기심을 유발하는가?(c4) 중요한 내용이 잘 부각되는가?(c5) 수업의 준비와 내용이 충실한가?(c6)

3.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실험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수강하는 세 분반의 89명의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한 명씩 모의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모의 수업 주제와 대상은 예비교사들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지도안을 미리 제출한 후 동료 예비교사들을 수업 대상으로 간주하고 실제 수업처럼 모의수업을 진행하였고, 각 모의수업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였다. 한 학기의 모든 모의수업이 끝난 후,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행동특성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모의수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 성적의 20% 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을 사용하였고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대한 유의도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특성들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14]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각 항목이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에 따라 4개의 사분면에 분포되는 방식으로, 1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지속 유지’,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가 낮아 가장 개선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개선노력 집중’, 3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은 ‘우선순위 낮음’, 4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음에도 실행 수준이 높은 ‘과잉노력 지양’에 해당된다.

IV. 연구결과

1.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및 차이 분석

예비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교수행동 영역은 수업진행(M=4.48, SD=.43), 수업구성(M=4.30, SD=.50), 언어적 표현(M=4.15, SD=.48), 얼굴표정 및 시선(M=3.88, SD=.66), 몸동작 및 복장

(M=3.81, SD=.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행도에서 있어서는 수업진행(M=3.64, SD=.6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업구성(M=3.57, SD=.54), 언어적 표현(M=3.55, SD=.63), 몸동작 및 복장(M=3.40, SD=.52), 얼굴표정 및 시선(M=3.36, SD=.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결과 (n=89)

영역	항목	중요도		실행도		t	유의도
		M	SD	M	SD		
언어적 표현	e1	4.26	.75	3.91	.69	3.44	.001
	e2	4.37	.67	3.62	.81	7.16	.000
	e3	4.24	.71	3.76	.80	4.02	.000
	e4	4.20	.66	3.46	.85	6.53	.000
	e5	3.69	.87	3.00	.99	4.72	.000
e	4.15	.48	3.55	.63	7.16	.000	
표정 및 시선	f1	3.60	.93	3.45	.87	1.01	.314
	f2	3.38	.89	3.35	.93	.24	.807
	f3	4.22	.78	3.21	.92	8.20	.000
	f4	4.30	.78	3.42	.90	7.15	.000
	f	3.88	.66	3.36	.76	4.75	.000
동작 및 복장	g1	3.71	.83	3.54	.71	1.47	.144
	g2	3.73	.86	3.38	.57	3.40	.001
	g3	3.82	.89	3.13	.77	5.70	.000
	g4	3.97	.92	3.54	.71	3.34	.001
	g	3.81	.70	3.40	.52	4.54	.000
수업 진행	r1	4.51	.66	3.90	.77	5.34	.000
	r2	4.46	.64	3.57	.80	8.96	.000
	r3	4.36	.64	3.43	.92	7.96	.000
	r4	4.45	.66	3.56	.80	8.43	.000
	r5	4.51	.66	3.69	.85	7.01	.000
	r6	4.60	.62	3.67	.94	7.62	.000
	r	4.48	.43	3.64	.61	11.10	.000
수업 구성	c1	4.09	.86	3.82	.72	2.44	.017
	c2	4.21	.82	3.73	.79	4.45	.000
	c3	4.08	.82	3.09	.81	7.83	.000
	c4	4.22	.74	3.60	.79	5.34	.000
	c5	4.58	.64	3.35	.80	11.79	.000
	c6	4.61	.62	3.84	.74	7.13	.000
	c	4.30	.50	3.57	.54	9.49	.000

주: e: 언어적 표현 영역; e1: 발음의 정확성; e2: 말하는 속도; e3: 목소리 크기; e4: 언어표현; e5: 목소리의 변화구사; f: 얼굴표정 및 시선 영역; f1: 얼굴표정; f2: 미소; f3: 시선처리; f4: 학생들과의 눈맞춤; g: 몸동작 및 복장 영역; g1: 바른 자세; g2: 몸동작; g3: 적절한 복장; g4: 긍정적인 태도; r: 수업진행 영역; r1: 교사의 열의; r2: 수업 속도와 흐름; r3: 수업 시간 조절; r4: 진행방식; r5: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r6: 교수내용 속도; c: 수업구성 영역; c1: 수업시작의 적절성; c2: 수업끝맺음의 적절성; c3: 수업 여유; c4: 호기심 유발; c5: 주요내용의 부각; c6: 수업내용의 충실성

개별 특성별로는 수업내용의 충실성(M=4.61, SD=.62), 교수내용 속도(M=4.60, SD=.62), 주요내용의 부각(M=4.58, SD=.64), 교사의 열의(M=4.51, SD=.66), 학생들과의 상호작용(M=4.51, SD=.66)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미소(M=3.38, SD=.89), 얼굴표정(M=3.60,

SD=.93), 목소리의 변화 구사(M=3.69, SD=.87), 바른 자세(M=3.71, SD=.83), 몸동작(M=3.73, SD=.86)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도 면에서는 발음의 정확성(M=3.91, SD=.69)이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열의(M=3.90, SD=.77), 수업내용의 충실성(M=3.84, SD=.74), 수업시작의 적절성(M=3.82, SD=.7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소리의 변화 구사(M=3.00, SD=.99), 수업 여유(M=3.09, SD=.81), 복장(M=3.13, SD=.77), 시선처리(M=3.21, SD=.92)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도를 나타냈다.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한 t 검정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5개의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에서는 얼굴표정(t=1.01, p>.05), 미소(t=.24, p>.05), 바른 자세(t=1.47, p>.05)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수행동들에 대한 IPA 결과

예비교사들의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IPA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전체 평균 4.17점과 실행도 전체 평균 3.52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점수에 따라 4사분면으로 구성된 매트릭스에 배치시킨 결과, 지속유지(1사분면)에 11개(44%), 개선노력 집중(2사분면)에 5개(20%), 우선순위 낮음(3사분면)에 6개(24%), 과잉노력 지양(4사분면)에 3개(12%) 특성이 분포되었다.

예비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특성으로는 발음, 말하는 속도, 목소리 크기, 교사의 열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준비와 내용의 충실성 등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고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개선노력 집중 항목으로는 언어표현, 시선처리, 눈맞춤, 수업시간 조절, 주요내용의 부각 등이 포함되었다. 예비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도도 낮고 실행도도 낮은 항목들로는 목소리의 변화구사, 얼굴표정, 몸동작, 복장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바른

자세, 긍정적 태도, 수업시작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들이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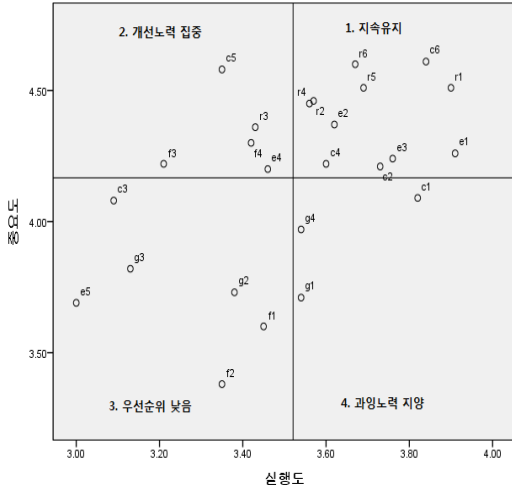


그림 1. IPA 결과 매트릭스

표 3. IPA 분석 결과

구분	항목
지속유지 (1사분면)	e1, e2, e3
	r1, r2, r4, r5, r6
	c2, c4, c6
개선노력 집중 (2사분면)	e4
	f3, f4
	r3
	c5
우선순위 낮음 (3사분면)	e5
	f1, f2
	g2, g3
	c3
과잉노력 지양 (4사분면)	g1, g4
	c1

주: e: 언어적 표현 영역; e1: 발음의 정확성; e2: 말하는 속도; e3: 목소리 크기; e4: 언어표현; e5: 목소리의 변화구사; f: 얼굴표정 및 시선 영역; f1: 얼굴표정; f2: 미소; f3: 시선처리; f4: 학생들과의 눈맞춤; g: 몸동작 및 복장 영역; g1: 바른 자세; g2: 몸동작; g3: 적절한 복장; g4: 긍정적인 태도; r: 수업진행 영역; r1: 교사의 열의; r2: 수업 속도와 흐름; r3: 수업시간 조절; r4: 진행방식; r5: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r6: 교수내용 숙지; c: 수업구성 영역; c1: 수업시작의 적절성; c2: 수업끝맺음의 적절성; c3: 수업 여유; c4: 호기심 유발; c5: 주요내용의 부각; c6: 수업내용의 충실성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

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교수행동 영역은 수업진행이었으며 그 다음은 수업구성, 언어적 표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얼굴표정 및 시선, 그리고 몸동작 및 복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또 수업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준비한 교수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언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교사의 얼굴표정이나 시선, 몸동작이나 복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실행 수준에 있어서는 수업진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업구성, 언어적 표현, 몸동작 및 복장, 얼굴표정 및 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중요도에 있어서는 수업진행, 수업구성, 언어적 표현의 3개 영역이 5점 만점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얼굴표정 및 시선, 몸동작 및 복장 영역은 4.0 미만으로 상위 3개 영역과 차이가 큰 데 비해, 실행도에 있어서는 5개 영역 모두 평균 3.36~3.6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진행과 수업구성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했듯이, 개별 항목별로도 수업진행 영역에 속하는 교수내용 숙지, 교사의 열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수업구성 영역에 속하는 수업내용의 충실성, 주요내용의 부각이 5점 만점에서 4.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해야 하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열의를 갖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해 나가면서 교수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미소, 얼굴표정, 목소리의 변화구사, 바른 자세, 몸동작, 복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몸동작 및 복장 영역에 속하는 항목들이 모두 4.0 미만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기존의 연구들 [10-12]과는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예비교사들은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몸동작이나 복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교수행동 영역은 수업진행이었고 그 다음은 수업 구성, 언어적 표현, 몸동작 및 복장, 얼굴표정 및 시선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예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의 순위와는 몸동작 및 복장과 얼굴표정 및 시선의 순위만 바뀐 것 외에 다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행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개별 특성으로는 발음의 정확성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열의, 수업내용의 충실성, 수업 시작의 적절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열의, 수업내용의 충실성, 수업시작의 적절성은 예비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진행과 수업구성 영역에 속하므로 예비교사들이 잘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언어적 표현에 속하는 발음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인 점은 예상 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실행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개별 특성으로는 목소리의 변화 구사였는데, 가장 높은 실행도와 가장 낮은 실행도 항목이 모두 언어적 표현 영역에서 나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변화를 잘 구사할 만큼 언어적 표현에 능숙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실행도를 보인 특성들은 수업 여유, 복장, 시선처리, 주요내용의 부각, 미소였는데, 이들은 교수경험이 풍부할수록 잘 실행할 수 있는 특성들이라는 점에서 아직 교수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수행동 영역은 수업진행이었고 그 다음은 수업구성, 언어적 표현, 얼굴표정 및 시선, 몸동작 및 복장의 순이었다. 이 순위는 예비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위와 같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중요도 면에서는 영역별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지만 실행도 면에서는 영

역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의 순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요도 인식 면에서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자신들의 실행수준은 영역간 차이가 별로 없고 또 중요도 인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중요도-실행도간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몸동작 및 복장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모든 교수행동 영역에서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다섯 개의 교수행동 영역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별 특성에서는 미소, 얼굴표정, 바른 자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실행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의 특성 중 이 세 항목을 제외한 22개의 항목에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행 정도가 낮게 나왔다는 점은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수능력을 많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특성별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행동특성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향후 개선노력을 집중해야 할 항목으로 언어표현, 시선처리, 학생들과의 눈맞춤, 수업시간 조절, 주요내용의 부각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항목들은 중요도가 높지만 실행도가 비교적 낮은 항목들로 예비교사들이 개선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항목들이므로 나타났다. 이중 언어표현, 시선처리, 학생들과의 눈맞춤은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자신이 교수 과정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시선처리와 눈맞춤을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주요내용의 부각은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보고, 수업시간 조절은 수업을 구성하거나 진행할 때 시간 배정 및 조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25개 항목 중 44%에 해당되는 11개 항목이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지속유지 항목으로 도출된 점은 예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실행도 비교적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수업관과 직결되므로 예비교사들이 어떤 특성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15][16]. 따라서, 교원양성기관들은 예비교사들이 ‘좋은 수업’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정립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17].

중요도도 낮고 실행도도 낮아 우선순위가 낮게 나온 항목들은 목소리의 변화 구사, 얼굴표정, 미소, 몸동작, 복장, 수업의 여유 등이었는데 이 항목들을 예비교사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노력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교사의 얼굴표정과 몸짓 등이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조규락[10]의 연구결과와는 대조된다. 이 특성들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쉽게 개선되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풍부한 교수경험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성들이기도 하다. 즉,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고 해서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는 특성들이 아닌 만큼, 차분하게 자신의 수업을 반성해가며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교사들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교수행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예비교사들이 교사의 어떤 교수행동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또 자신들의 실행수준은 실제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인식이 ‘좋은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또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질 높은 수업의 방향과 부합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과연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질 높은 수업의 방향과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경험이 풍부하고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인식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제대로 정립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의 바람직한 교수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사의 행동전략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 대학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예비교사 집단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재춘, 변효중,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pp.373-382, 2005.

[2] 엄미리, 김명량, 장선영, 박인우, “‘좋은 수업’에 대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 지양해야 할 수업 형태와 관련하여 -”, *한국교육학연구*, 제15권, 제1호, pp.107-132, 2009.

[3] J. A. Centra, *Reflective Faculty Evaluation*, Jossey-Bass, 1993.

[4] 원효원, “수행중심의 교사평가 영역 및 요소의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11권, 제1호, pp.103-126, 1998.

[5]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호정, 유예림,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구성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47-69, 2007.

[6] 강숙희, “모의수업 활동에 기반한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24권, 제1호, pp.209-228, 2012.

[7] 조영하, 박소연,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대학 교수자의 교수행동 측정척도 탐색",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6권, 제1호, pp.105-127, 2013.

[8] J. Stronge, *Qualities of Effective Teachers*,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2.

[9] 손정목, 원유동, 강성태, 조우성, 엄명용, "군 교육에서 교수행동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478-487, 2012.

[10] 조규락, "교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도움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7권, 제3호, pp.261-282, 2011.

[11] D. J. Lincoln, "Drama in the classroom: How and why marketing educator can us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nthusiasm to build student rapport," *Marketing Education Review*, Vol.18, No.3, pp.53-65, 2008.

[12] J. K. Burgoon, T. Birk, and M. Pfau, "Nonverbal behaviors, persuasion and credibil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17, pp.140-169, 1990.

[13] 정혜선, *강사, 퍼실리테이터로 거듭나라!*, 시그마프레스, 2005.

[14]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2, No.1, pp.77-79, 1977.

[15] 권성연, "'좋은 수업'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26권, 제1호, pp.185-215, 2010.

[16] 이수연, 홍성연, "e-포트폴리오 활용한 성찰활동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교수효능감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968-978, 2013.

[17] 이해정, "중등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500-512, 2014.

저 자 소 개

강 속 희(Sook-Hi Kang)

정회원



- 198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학사)
- 1992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육학과(석사)
- 1994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육학과(박사)
- 2002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관심분야> : 교수설계, 교수법, 멀티미디어, 이러닝